

KIA 안치홍·해즐베이커 타선 폭발

NC다이노스전 6-5 승리
시범경기 3승 2무 무패
안치홍 3타점 활약
해즐베이커 첫 멀티히트



KIA 타이거즈가 토종 중심타자 안치홍과 새 외국인 타자 제러미 해즐베이커의 활약 속에 시범경기 무패 행진(3승 2무)을 이어갔다.

KIA는 17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시범경기에서 NC 다이노스를 6-5로 꺾었다.

3번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한 안치홍은 3타수 2안타 3타점을 올리며 해결사 역할을 했고, 해즐베이커는 4타수 3안타를 치며 기대감을 키웠다. 해즐베이커는 KBO 리그에서 개인 첫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쳤다.

KIA는 불안하게 출발했다. KIA 선발 제이컵 터너는 1회초 시작과 동시에 박민우에게 우중간 3루타, 권희동에게 좌익수 쪽 2루타, 박석민에게 중전 적시타를 허용하며 2점을 내줬다. 그러나 2회말 NC 선발 드루 루친스키가 흔들리면서 KIA에 기회가 왔다. 루친스키는 2회 첫 타자 나지완을 볼넷으로 내보내며 위기를 자초했다.

해즐베이커와 이명기에게 연속안타를 맞아 무사 만루에 처한 루친스키는 김민식의 타석에서 폭투를 던져 첫 실점했다. 1사 2, 3루에서는 최원준에게 좌익수 쪽 희생플라이를 맞아 1점을 추가로 내줬다.

KIA는 3회 선두타자 김주찬이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기회를 만들자, 안치홍



17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9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에서 KIA의 안치홍(왼쪽)과 해즐베이커가 타격하고 있다.



이 1타점 중전 적시타를 쳐 추가점을 뽑았다. 4회에는 2사 1루에서 김주찬, 안치홍, 최형우가 연속 안타를 쳐 3점을 더 얻었다.

루친스키는 한국 무대 데뷔전에서 5이닝 11피안타 6실점으로 고전했다. NC는 2-6이던 5회 1사 1, 3루에서 권희동의 중견수 희생 플라이로 한 점을 만회하고, 7회 김성욱과 강진성의 적시타로

2점을 뽑아 5-6까지 추격했다. 그러나 KIA는 8회 이민우, 9회 문경찬 등 젊은 투수를 활용해 한 점 차 승리를 지켰다. /연합뉴스

해외파 축구대표팀 벤투호 합류 준비 끝

이승우 시즌 첫 도움... 지동원·이재성·황인범 풀타임 소화

볼리비아·콜롬비아와의 A매치를 앞둔 축구대표팀의 해외파 선수들이 A매치 휴식기 전 마지막 소속팀 경기에서 활약하며 대표팀 합류 준비를 마쳤다.

이탈리아 세리에B(2부리그)의 엘라스 베로나에서 뛰는 이승우는 17일(한국시간) 아스콜리와의 리그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동점 골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이승우의 이번 시즌 첫 도움이자 지난해 12월 포자전 득점 이후 3개월 만에 기록한 공격포인트다.

이승우는 최근 5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며 베로나의 주전으로 자리매김했다.

2019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막판에 극적으로 합류했으나 거의 뛰지 못했던 이승우는 최근 소속팀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대표팀에서도 입지 굳히기에 도전한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태극전사들도 풀타임 활약으로 예열을 마쳤다.

아우구스부르크의 지동원은 이날 하노버전에서 2선 공격수로 나서 전후반 90분을 모두 뛰었다.

비록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모두 6번의 슈팅을 날리며 팀의 3-1 승리에 기여했다.

축구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지동원에게 양 팀 통틀어 두 번째로 높은 8.1의 평점을 매겼다.

지동원은 이전 경기에서 근육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돼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으나 이날 활발한 움직임으로 우려를 씻어



이탈리아 세리에 B에서 시즌 첫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승우

났다. 분데스리가 2부 홀슈타인 킬의 이재성도 전날 풀타임 활약하며 팀의 5-1 대승에 힘을 보탤다.

프랑스 리그앙에서는 부상을 딛고 1년 만에 대표팀에 복귀하는 권창훈(디종)이 후반 43분 교체 출전했다.

미국 축구 메이저리그(MLS)에서 뛰는 황인범(밴쿠버)도 이날 리그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풀타임을 소화했다.

황인범은 이번 시즌 개막 3경기 연속 선발로 나서 전후반 90분을 모두 뛰며 팀의 주전으로 자리 잡았다.

분데스리가 2부의 이창용(보훔)과 일본 J리그의 황의조(감바 오사카) 등은 17일 대표팀 합류 전 마지막 소속팀 경기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양학선, 국제대회서 6년 만에 우승

체조 종목별 월드컵 도마 결선서 금메달

'도마의 신(神) 양학선(27·수원시청·사진)이 17개월 만에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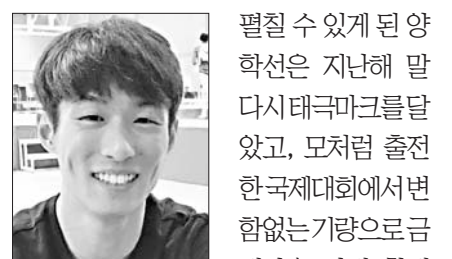
양학선은 17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국립체조아레나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FIG) 종목별 월드컵 대회 남자 도마 결선에서 1, 2차 시기 평균 14.970점을 획득해 나머지 7명의 경쟁자를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학선이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건 2013년 벨기에 안트베르펜 세계선수권대회 이래 6년 만이다.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도마에서 정상에 올라 한국 체조 사상 첫 메달리스트가 된 양학선은 이후 여러 부상으로 고전했다.

양학선은 예선에선 1, 2차 시기 모두 작지 때 발자국 움직임이 발점 0.3점을 받아 깎인 점수를 받았지만, 결선에선 발점 없이 클린 연기로 이고르 라디빌로프(우크라이나·14.833점), 데니스 아블라진(러시아·14.766점)을 쉽게 따돌렸다.

꾸준한 재활로 햄스트링 부상을 안고도 전성기 기량에 버금가는 점프와 기술을



평점 수 있게 된 양학선은 지난해 말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고, 모처럼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이번 금메달을 따내 황제의 귀환을 알렸다.

예선 3위로 결선에 오른 양학선은 1차 시기에서 자신의 독자 기술인 '양 1'(난도 6.0점)을 펼쳐 실시점수 9.100점을 보태 15.100점을 받았다.

2차 시기에선 쓰카하라 트리플(난도 5.6점) 기술을 선보여 실시점수 9.241점을 합쳐 14.841점을 얻었다.

양학선은 예선에선 1, 2차 시기 모두 작지 때 발자국 움직임이 발점 0.3점을 받아 깎인 점수를 받았지만, 결선에선 발점 없이 클린 연기로 이고르 라디빌로프(우크라이나·14.833점), 데니스 아블라진(러시아·14.766점)을 쉽게 따돌렸다. /연합뉴스

광주FC, 부산아이파크와 홈경기 1-1

펠리페 시즌 5호골...3경기 연속 골
전남, 안양에 1-0으로 시즌 첫 승리



프로축구 광주FC가 부산아이파크와 홈 경기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무승부에 그쳤다. 그러나

펠리페는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물오른 골 감각을 보였다.

광주는 17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부산과 하나원큐 K리그 2 2019 3라운드 홈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광주는 개막전 3연승에 실패해 대전 시티즌과 승점 7점으로 동률이 됐지만, 다득점에서 앞서 선두를 유지했다. 펠리페는 이날 시즌 5호골로 득점 선두를 지켰다.

광주와 부산은 초반부터 기회를 주고 받았다. 부산이 전반 5분 역습 기회에서 시도한 이동준의 슈팅은 빗나갔다. 광주는 1분 뒤 여름이 펠리페의 패스를 받아 돌파하면서 슈팅했으나 골로 잇지 못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광주가 결정적인 기회를 연이어 잡았다. 여름이 전반 27분 펠리페 돌파가 무산되어 흐른 볼을 오른쪽으로 감아 찼으나 골대를 살짝 빗겨갔다.

이희균이 전반 42분 수신야르의 백패스를 가로 채 골키퍼와 일대일 기회를 맞이했다. 그러나 그의 슈팅은 부산 골키퍼 김형근에게 막혔다.

그러나 후반 시작 3분 만에 호물로에게 페널티 킥으로 선제 실점을 내줬다. 이후 연이어 추가 실점 위기를 맞았으나 이진형의 선방이 빛났다.

위기를 넘긴 광주가 동점에 성공했다.



광주FC는 17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부산과 하나원큐 K리그2 2019 3라운드 홈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광주의 펠리페가 공을 헤딩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펠리페가 후반 16분 이시영의 크로스를 받은 후 좌측 사각지대에서 때린 슈팅으로 부산 골망을 흔들었다.

광주도 역전을 이루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 나섰다. 공격수 조주영 카드를 투입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걸었다.

막판까지 부산을 몰아 붙였지만, 더 이상 득점 없이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한편 전남 드래곤즈가 올 시즌 첫 승리를 거뒀다.

전남은 같은 날 광양전용경기장에서 펠

체진 홈경기에서 안양 FC에 1-0으로 이겼다.

지난 시즌 K리그1(1부리그)에서 강등된 전남은 2연패를 끊고 K리그2에서 3경기 만에 승점 3점을 따냈다.

안양은 지난 부천 FC전에 이어 전남에도 패배해 1승 2패가 됐다.

안양은 전반 내내 주도권을 잡고 전남을 몰아세웠으나 전반 종료 직전 터진 최재현의 '한방'으로 흐름을 단숨에 뒤집었다.

김건웅이 페널티박스 우측 바깥에서 울

린 크로스를 호물로가 헤딩 슈트로 연결했고, 이를 양동원 골키퍼가 막아내자 최재현이 재차 골문 안으로 차 넣어 골을 만들어냈다.

안양은 경기 막판 팔라시오스와 알렉스를 앞세워 '파상공세'를 펼쳤지만, 번번이 슈팅이 골문을 빗겨나가며 동점을 만들지 못했다. /차이정 기자 chaajung@

기사제보 2580@jndomin.kr

'나주영산강마라톤대회' 다음달 7일 개최

21일 참가 접수 마감...풀·하프·10km·5km 4종목

'제6회 광주·전남혁신도시 나주영산강마라톤대회'가 나주시 영산강변에서 21일 개최된다.

대회는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와 (사)엔디에스앤씨가 주최하고 전남도, 광주광역시, 나주시, 광주시교육청, 사랑방, 무등일보 등이 후원한다.

이 대회는 2014년 광주·전남혁신도시 입주하면서 입주기관과 지역민들의 화합을 위해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 대회는 '한전공대 유지 환경'과 '광주·전남혁신도시 입주기관과 지역민 간의 화합'이라는 두가지 캐치프레이를 걸고 진행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대회 코스는 나주스포츠파크를 출발해 빛가람대교-나주대학교-송촌보 등 아름다운 영산강변 구간을 달리는 것으로 구성됐다.

종목은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4가지다.

풀코스, 하프코스, 10km 참가자에게 나누어 특산품인 배추 1상자가, 5km 참가자들에게는 대회 기념 티셔츠가 제공된다. 또 각 종목별 순위에 따라 시상금도 지급된다.

접수 마감은 오는 21일이며, 참가 신청은 대회 홈페이지(www.najurun.kr) 또는 대회 사무국(061-921-6600)으로 하면 된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 땀과 배짱이 흐드러지게 핀 주로를 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라톤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5km 종목에 출전해 영산강의 봄기운을 만끽해 보라"고 주문했다.

/나주=김동철 기자 dongkk@